

아이코노그래피 : 서양미술 속에 숨겨진 알레고리, 신화와 성서 읽기
윤 익 영

제 3강 에로스 (아모르, 쿠피도, 큐피드)

2.5. 안대를 하게 된 아모르

◆ 중세의 모델리스트(신화해석학자)들이 해석한 아모르

그들은 아모르를 육체의 '타락한 사랑'으로 교훈 함

프로페르티우스(Propertius, B.C.47~15년경) 『애가서哀歌書』에서 본 쿠피도의 부정성

- 어린아이 : 사랑의 '무분별 함'
- 날개를 단 것 : '변덕스럽고 불안정 함' '눈먼 아모르' 로 부정적 측면 확대
- 그의 화살 : 사랑의 '상처'

심지어 아모르의 발을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의 발톱으로 묘사(도판)

◆ 중세의 시편에서 본 악마적인 품성의 쿠피도

'알몸'과 '장님'의 의미 - 사람에게서 옷과 재산, 양식(良識)과 총명을 벗겨가고, 갈 곳을 모르며,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처럼 바라보게 하고, 사랑이나 물건에 반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

'안대'의 의미 - 방향 감, 판단력, 분별력 없이 열정에만 이끌리는 정신적 어둠, 은폐, 비밀, 암흑, 흐릿함 등의 부정적인 것

2.6. 안대의 출현과 알레고리

◆ 11세기 초반을 전후로 점차 확산된 안대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1220년경)의 '안대를 한 죽음'(도판), 샤르트르 성당(1220~1225년경)의 '안대를 한 밤'(도판)

중세에는 오른쪽에 낮(생명, 신약)을 왼편에는 밤(죽음, 구약)을 세움

'십자가 책형' - 예수의 오른쪽 죄수는 그리스도교의 의인화이자 선을 상징, 왼편 죄수는 시나고그(유대교)의 의인화이자 악을 상징 함

11세기의 한 미사용 복음서 - 오른쪽 죄수에게는 "경건한 은총은 해가 뜨는 데서 일어난다."는 문구와 생명의 화신 '아우로라(Aurora)' 즉 새벽과 짝을 짓는 반면, 왼편 죄수에게는 "법은 해가 지는 데서 유지된다."는 문구를 써서 죽음의 화신 '크레푸스쿨룸(Crepusculum)' 즉 저녁과 짝을 지음

라틴어의 '왼쪽(*sinister*)'은 '불길한', '오른쪽(*dexter*)'은 '능숙한 솜씨'라는 의미와 관련

유대교의 눈가리개 - 「예레미아 애가」(5:16-17)의 "오호라 우리의 범죄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 눈이 어둠 나이다!"에서 찾음

실명성의 알레고리 - 12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장면을 연출, '어둠으로 빠져드는 장님'들과 '운명의 여신'(고대의 '눈먼 운명'), 피에르 미쇼는 <장님들의 춤>이란 시에서 죽음, 운명, 사랑을 모두 '눈먼 신'으로 결속(도판)

◆ '눈을 가린 정의'의 등장

정의의 여신이 눈가리개 한 것은 공정성을 상징, 호메로스의 실명성은 감각적 욕구에 대한 차단

□'정의의 눈가리개'는 이집트에서 온 것이고 16세기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다시 알려져 1530년경 '눈을 가린 정의'가 처음 등장 함

□리파의 『이코놀로지아』(1593) - 세속적인 정의는 눈가림을, 신적인 정의는 밝은

형안을 취함(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갖기도 함)

✓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눈가리개를 하지 않으며 한 손엔 검을,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다.

(도판)

2.7. 안대의 에로스와 안테로스

◆ 고대의 안테로스 - '상호적 사랑'이며, 한쪽이 그와 똑같은 성질로 '보답'하는 것을 말함
즉, '보답적인 사랑'을 뜻 함

◆ 르네상스 안테로스 - 신플라톤주의, 윤리학자, 인문주의자들이 '~에 맞대어'로 해석, '쌍
방 적 사랑'으로 여김, 이것은 '비 보답 적' 행위이며 '자발적 사랑'
으로 변함

르네상스의 안테로스는 '성스러운 사랑', '정절'의 의미로, 에로스는 '세속적 사랑', '감각
적 사랑'으로 발전하며, 안테로스에겐 (에로스처럼) 안대를 씌우지 않으려 한다.(도판<쿠
피도에게 안대를 씌우는 베누스, 혹은 쿠피도 교육>)

2.8. 안대를 벗는 아모르

중세 이후, '안대의 아모르'는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형상도 다양해 짐

(도판<아모르 카르날리즈>) - '육체의 아모르'로서 벌거벗은 여인으로 의인화 되었는데,
중세의 전통상 나체의 여인이란 오직 육체적 쾌락을 의미

프랑스 지역 - 당시의 고급 패션을 갖추고 왕비나 왕자처럼 나타나 베누스의 무리와
어 울림(도판)

르네상스 시대 - 중세의 해괴망측한 아모르를 다시 고대적인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함 :
활을 소지한 귀엽고 통통한 어린아이로 묘사(도판)

□그러나 중세의 상속물인 안대는 여전히 남아 보티첼리의 <봄>에도 그대로 이어짐(도판)

'안대의 아모르'에서 벗어나는 좋은 예 - (도판<안대를 벗는 아모르>)는 신 플라톤주의

적인 아모르를 묘사한 예

2.9. 결합의 알레고리

◆ '결합'의 속성을 지닌 에로스

부부나 연인들, 혼인잔치에 어김없이 끼려는 에로스(도판<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의 포옹>), '신부혼례'의 알레고리를 담은 것으로 (도판<성스러운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에서 에로스가 샘물을 휘저음으로써 사랑의 혼합을 나타내는 에로스 등

한 때 '작별'의 알레고리로 이해됐던 (도판<다발로스(d'Avalos) 후작의 알레고리>)는 에로스가 활 대신에 나뭇단을 갖고 움으로써 '결합'을 의미한 것이며, '마르스와 베누스'로 분장한 귀족의 초상화로 '결혼의 알레고리'를 담은 것임.(<밀로의 비너스>도 본래는 마르스와 포옹하는 한 쌍의 커플)

베누스와 마르스 사이에서 딸 하모니가 태어났다는 헤시오도스의 설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전해졌었고, 신 플라톤주의자들은 거기에 심오한 추상적 해석을 덧붙여 상반적인 그들의 결합을 '우주적 조화'로 설명했다.

이 같은 해석으로 인해, 사실상 불륜관계의 이교도 신인 베누스와 마르스는 고상한 주제로 버젓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예를 보티첼리와 만테냐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보티첼리는 마르스를 사랑에 굶아떨어진 젊은이로 묘사했는데 그의 무력을 상징하는 무기와 투구, 갑옷은 어린 사티로스(정욕을 상징)들의 장난감이 되었다.(도판) 만테냐는 '베누스와 마르스' 커플을 당치도 않게 아폴론의 전당인 몽파르나스에 주인처럼 그려 냈다.(도판)

이와 상관 없이 '베누스와 마르스'로 분장한 부부 초상은 로마시대의 (도판<마르스와 베누스, 하드리아누스 황제 부부>)와 헤라와 헤라클레스로 오해했던 베로네세의 작품(도판<베누스와 마르스>)도 신혼부부의 초상화였던 것을 알 수 있음

헤라와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틸토레토의 (도판<은하수>)에서 잘 묘사하고 있음

<다발로스 후작의 알레고리>에서처럼 한 남성이 여인의 젖가슴에 손을 얹는 것은 그들이 부부이거나 약혼자임을 알리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동작은 폼페이 벽화(도판<베누스와 마르스>), 렘브란트의 (도판<유태인 약혼녀>)에서도 볼 수 있음